

근대 계몽기 어문 교과서의 형성에 관한 연구* **

-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를 중심으로 -

조희정 ***

〈차 례〉

- I. 서론
- II. 교과 개념의 등장
- III. 중세 문해력 교육의 해체
- IV. 근대 어문 교과서의 성립
 - 1. 구어(口語) 교육
 - 2. 문어(文語) 교육
- V. 결론

I. 서론

근대 계몽기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어'라는 교과서가 언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작업¹⁾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어'라는 교과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3-AM1046).

** 이 논문은 2003년 1월 24일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 연구' 2차 집담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조언을 통해 논의를 보강하도록 도와주신 윤여탁, 민현식, 송철의, 한재영, 최미숙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연구원.

1) 박봉배(1992)의 「개화기 국어과 교육연구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1980. 『국어과교육논총 硏學稿 I』, 한국국어과교육개발연구회; 조문제

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국어’ 교과는 중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낯선 것이라는 점에서 ‘국어’ 교과와 형성의 고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성립과 당대인들의 인식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국어’ 교과가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³⁾ 그것이 학교 현장에 삼투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에게까지 ‘국어’ 교과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의 ‘국어’ 교과에 대한 인식적 전제는 근대 계몽기 시대적으로 ‘국어’ 교과에 요청되었던 소명은 무엇이며, ‘국어’ 교과에 대한 이상적인 상(像)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관련된다. 왜냐하면 근대 계몽기 ‘국어’라는 교과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읽고 쓰는 활동을 중요한 교육적 요소로 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교과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중세의 문해력(literacy) 교육은 부정·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을 뿐 제대로 된 반성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⁴⁾ 즉, 외형상 근대 ‘국어’ 교과와 등장한 중세 문해력 교육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양상을 띠고 있다기보다는 서구로부터 새롭게 도입된 ‘무엇’에 가까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근대 이후 ‘국어’ 교과

(1984), 『개화기 국어과 교육의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 2) 교과와 운용이나 목표가 보통학교령과 고등학교령에 의거하지 않은 학교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8년 『學校令에 據치 아니한 私立學校의 學科課程 一例』가 『西北學會月報』제5호(서북학회)에 제시되어 있다. 보통학교 수준의 국어과 교육 목표는 “日常須知의 文字及普通文의 讀法書法綴法”, 고등학교 수준의 국어과 교육 목표는 “講讀, 文法, 作文, 習字”이다.
- 3) 제도적인 면에서 보면 근대적 형태의 국어교육의 공식적 출발은 1895년 7월 19일의 정부가 반포한 소학교령(小學校令)으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국어과의 중심 영역은 작문과 독서 및 습자, 문법 교육이었다. 『小學校令』附校則, 丁酉, 국립도서관 소장본.
- 4) 이응백(1985)의 『속 국어교육사연구』(신구문화사)에서는 국어교육의 출발점을 삼국시대 이전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중세의 한자, 한문 학습이 국어교육에 포함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근대 이전 한자, 학문 학습과 관련한 자료의 나열에 그친 감이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에서 중시한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세의 문해력 교육의 특성은 무엇으로 간주되며 지양되었는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⁵⁾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 관련해서 강조되었던 '어문' 교과의 형성 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의 고찰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현대 '국어' 교과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굴절과 변이를 포착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논의에 앞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국어'라는 용어 대신에 '어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국어'라는 용어 대신 '어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국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 용어가 담보하고 있는 '국문', '한글'이라는 의미망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통시적 시각 속에서 국어교육사를 정리한 경우⁶⁾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고 있었던 만큼 '국어'라는 개념 틀에 의해 표기 수단이 한글이냐 한문이냐는 기준 속에서 대상을 선택·배제함으로써 논의의 협소함을 자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어문'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근대 계몽기 어문 교육의 실상에 더 부합한다. 실제로 근대 계몽기 원칙적으로 '국문'의 표기가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과목으로 분류된 독서, 작문 교과서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국문' 표기 외에 한자로 표기된 텍스트를 교육 내용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⁷⁾ 즉, 원칙적인 강조와는 달리 국문 교육과 한문 교육은 혼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실제 교육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다.

5) 이러한 관점에서 중세 문해력 교육의 특징을 고찰하고 근대 계몽기와 해방 이후 국어교육에서의 변이 및 굴절 양상의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는 졸고(2002),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조선 세종조 과거 시험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이 있다.

6) 박봉배(1987), 『한국국어교육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최현섭외(2000), 『국어교육학개론』제2판, 삼지원.

7) 崔在學(1908), 『文章指南』, 徽文館, : 崔在學(1909), 『實地應用作文法』, 徽文館, : 李覺鍾(1912), 『實用作文法』, 博文書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7년판), : 李鍾麟(1913), 『文章體法』, 普書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또한 한자를 외국어로 인식함과 동시에 영어와 일본어 등의 외국어에 대한 자각이 '언어과'라는 통합적 시각을 유도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⁸⁾ 실제로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의 신교육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중국의 리앙치츠아오[梁啓超]⁹⁾나 일본의 후쿠자오 유키치[福澤諭吉]¹⁰⁾ 등의 자국내 어문 교육 관련 발언을 적극 수용하면서 '어문' 교과서의 성립을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이 고찰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 『대한자강회월보(大韓自強會月報)』, 『서우(西友)』, 『서북학회월보(西北學會月報)』, 『태극학보(太極學報)』, 『대한유학생회학보(大韓留學生會學報)』, 『대동학회월보(大東學會月報)』, 『대한학회월보(大韓學會月報)』, 『호남학보(湖南學報)』, 『기호흥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 『대한협회회보(大韓協會會報)』, 『대한흥학보(大韓興學報)』, 『교남교육회잡지(嶺南教育會雜誌)』 등 13종¹¹⁾의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¹²⁾이다. 이 중에서 특히 『태극학보』, 『서북학회월보』, 『기호흥학회월보』와 『대한자강회월보』에서는 근대적 교과서의 개념이 명시적으로 표방되고 있

8) 張膺震, 「教授와 教科에 對 하여」, 『太極學報』제13호, 태극학회, 1907는 대표적이다.

9) 번역 수록된 글은 「學校總論」, 「論幼學」, 「論學會」, 「論師範」 등이다. 특히 「學校總論」과 「論幼學」은 『西友』와 『大韓協會會報』에 중복되어 실려 있다. 飲水室主人, 朴殷植 譯, 「學校總論」, 『西友』2호, 서우학회, 1907.; 飲水室主人, 朴殷植 譯, 「論幼學」, 『西友』6-10호, 서우학회, 1907.; 洪弼周譯, 「學校總論 氷集節畧(續)」, 『大韓協會會報』제3-6호, 대한협회, 1908.; 洪弼周譯, 「論學會 氷集節畧(續)」, 『大韓協會會報』제8호, 대한협회, 1908.; 洪弼周譯, 「論師範 氷集節畧(續)」, 『大韓協會會報』제9호, 1908.

10) 福澤諭吉, 金鴻亮 譯, 「勸學論 - 日本大教育家福澤諭吉記」, 『太極學報』제25호, 태극학회, 1908.; 日本福澤諭吉著, 「修身要領」, 『畿湖興學會月報』제11호, 1909.

11) 『친목회회보』(1896.2.15-1898.4) 통권 6호는 고찰 대상에서 빠져 있다.

12)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는 주로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편찬되었다. 따라서 학술 잡지에 수록된 논문들은 서구에서 수입된 근대 학문에 기반하고 있으며, 근대적 학교 교육의 실제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졸고(2003),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특성 - 근대 계몽기 학술잡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제 11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를 참조할 것.

다. 이에 명시적으로 표방된 교과서의 개념 속에서 '어문' 교과서가 다루어지는 방식에 주의하면서 근대 계몽기 '어문' 교과서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기로 한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밟아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첫째, 교과서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문' 교과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교과서의 개념이 등장해야 하는데, 교과서의 등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 고찰되어야 한다.

둘째, 근대적 교과서의 개념이 등장하는 속에서 중세의 문해력 교육은 어떻게 해체되어 갔는가? '어문' 교과서의 성립 속에서 하나의 지양태로 비판의 초점이 모아졌던 부분이 바로 중세의 문해력 교육이다. 기존에 존재하였고 당시에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중세의 문해력 교육이 근대 교육의 교과 개념 속에서 어떠한 해체 과정을 거쳤으며, 어떻게 재편되어갔는가가 해명되어야 한다.

셋째, 중세 문해력 교육의 해체를 토대로 하여 근대 계몽기 '어문' 교과서는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중세 문해력 교육의 해체를 통해 새롭게 부각된 측면은 무엇인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근대 계몽기 '어문' 교과서에서 새롭게 주목하게 된 지점은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II. 교과 개념의 등장

현대 교육에서 '교과'를 통해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에 해당하지만¹³⁾ 중세의 교육과는 다른 근대의 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교과' 개념은 신학문, 신교육의 특징적 면모라고 할 수

13) 국어교육에서 교과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국어 교과의 내용과 방법을 포괄하고자 하는 학문, 즉 '국어교과학'의 등장으로 본격화된다. 국어교과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이인제, 『국어교과학 연구』, 교과학 연구 총서3 연구보고 RR97-16-2, 한국교육개발원, 1997.

있다. 따라서 근대 계몽기 새롭게 도입된 '교과'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낯선 것으로 인식되었을 터인데, 예컨대 낯선 교과에 대한 설명¹⁴⁾이나 "학교의 학과라는 것이 넘어 복잡해야 알 수 없"다는 구학문을 숭상하는 선생과 신학문을 배우려는 제자의 대화를 통해 학과를 다시 설명하려는 시도¹⁵⁾ 등은 이러한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교과의 등장이 야기한 새로운 교육적 양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먼저 교과와 교수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논하고 있는 장응진의 논의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자료1] 敎授의 目的은 現世人類의 開化를 適當히 理解할만한 必要한 內容을 傳受해야 兒童의 知能을 啓發하는 作用이라 蓋國民敎育의 目的은 凡人이 此世에 生하면 一個人으로 又는 國家社會의 一員으로 相當한 品格을 保有해야 各自의 任務를 盡케 함이니 此目的을 達코저 하면 各個人으로 하여금 現世를 理解하며 國民의 資格으로 國家全體의 理想目的을 覺知하고 世上에 處하는데 必要한 知識과 技能을 傳習하며 漸次其主義를 陶冶해야 觀察을 穎敏히 하고 記憶像想의 作用을 增進하며 推理判斷을 精確하게 해야 處世上에 不便이 無케할거슨 論을 不待하고 自明한거슨 敎授上에 最必要한거슨 其時代精神에 最適當한 敎科材料를 精選함에 在한지라 萬一 知識의 多量을 注入함으로써 爲主하여 心的陶冶를 不顧하고 다못 雜多한 材料를 機械的으로 蓄積하면 其人의 人格을 高尚케 못할뿐만 아니라 習得한 知識도 活用키 無路하여 敎授의 本意가 無效에 歸하리니 然則 心的 修鍊을 또는 輕視치 못할거시라 然이는 또 萬一心의 陶冶로써 唯一의 目的을 삼고 知識의 修養을 輕視한 端이 有하면 往往偏見挾量에 陷할뿐만 아니라 世事에 疎遠하고 實際에 迂闊하여 生活上에 實用의 效果를 收키 不能하리니 故로 敎授의 良方은 一邊으로는 知識의 材料로써 感官을 鍊磨하여 觀察을 精密히하고 記憶像想을 增進하며 推理判斷을 正當히하고 他邊으로는 心的鍛鍊을 更加하여 思想을 高尚히하고 感情을 調和하며 意志를 鞏固케하여 如此히 知的陶冶와 心的修養이 不偏不倚하여 兩兩并進호 然後에야 敎授의 眞正한 效果를 可期할지니 然則 敎科의 材料選擇과 其順序排列과 全

14) 浩然子, 「理科敎授法問答」, 『太極學報』제15호, 태극학회, 1907.

15) 隱憂生, 「師弟의 言論」, 『太極學報』제19호, 태극학회, 1908.

科結合統一方法의 良否는 以上の 教授目的을 成하고 成치못하는데 最大 關鍵이라(띄어쓰기는 필자)16)

[자료1]에 의하면 교과서의 성립에 개입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이다.

- ① 교육 목표의 세분화
- ② 교과 재료의 선택
- ③ 과학적인 교수

교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교육 목표가 먼저 존재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교과 재료가 선택될 수밖에 없으며, 이때의 교과 재료에 의해 결국 교과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교육은 크게 신체의 발달을 목표로 하는 신체 교육¹⁷⁾과 심적 도야와 지적 수양을 목표로 하는 정신 교육으로 양대분되는데, 이로부터 지·덕·체¹⁸⁾라는 교육 목표가 설정된다.¹⁹⁾ 교육의 목표가 지·덕·체와 같이 삼분된 덕목으로 나뉜다²⁰⁾는 것은 이미 교육이 세 가지 독자적인 영역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세 가지 영역은 서로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서로 다른 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 재료가 선택되고 이로부터 분화된 교과가 성립하게 된다. 예컨대 체육(體育)을 위해서 체조과가 성립되며, 지적 수양(智育) 외에 심적 도야(德育)를 위해 수신과의 성립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16) 張膺震, 「教授와 教科에 對하여」, 『太極學報』제13호, 태극학회, 1907.

17) 李昌煥, 「智育不如體育(寄書)」, 『太極學報』제3호, 태극학회, 1906.

18) 禹敬命(譯), 「教育의 目的」(『太極學報』제10호, 태극학회, 1907)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체육(體育), 덕육(德育), 지육(智育)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덕·체 이외에 정육(情育)이 추가되기도 한다.(研究生, 「學問의 目的」, 『太極學報』제17호, 태극학회, 1908)

19) 근대 계몽기 지·덕·체, 지·정·의와 같은 범주의 형성과 변이 과정에 대한 논의는 권보드래(2000),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7-53쪽에서 자세하다.

20) 『西北學會月報』제1권제7호의 「教育學의 區分」(서북학회, 1908)에서는 체육과 지육, 덕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生長方法'과 '強健方法'으로 나누어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방법을 설정·소개하고 있다.

서로 다른 교육 목표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연계의 현상 자체가 이미 분화된 몇 가지 기준에 의해 포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료2] 此에 單純호 教育의 方法으로 能히 天演界의 物競을 勝利키 難호니 於是乎士有士學호고 農有農學호고 工有工學호고 商有商學호야 乃至百千萬의 無量호 人生細瑣호 事物에 莫不有學호며 莫不精緻호야 孜孜於是호며 勤勤於是호야 惟視其能否호야 沒首沒身히 從事於是호니(중략) 試問호건다 如右호 學術로 其人의 才能을 隨호야 各敎其 術에 各成其美호야스면 世界에 表章호야 曰某人은 某學의 博士오 某人은 某學의 泰斗라 可稱호지니 然則人人皆學에 技藝巧絶호면 不必問其 如何호고 曰彼們이 能利其羣호며 利其國호리라 단언호 자) 유희지나(떠어쓰기는 필자),²¹⁾

[자료2]에서 예시된 사학, 농학, 공학, 상학의 구분은 전통적인 계급 구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人生細瑣호 事物에 莫不有學호며 莫不精緻호야” “單純호 教育의 方法으로 能히 天演界의 物競을 勝利키 難”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자연 및 사회 현상에 기초한 학문의 세계 역시 분화할 수 있다는 관점이 성립할 수 있다. [자료2]가 포함된 「敎無定向이면 反不如不敎」의 주요 골자는 세분화된 지식 교육에만 골몰해서는 안 되며, 도덕 교육에 힘을 써야 한다는 논지인데, 그러한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식 교육의 세분화된 목표와 내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목의 분화는 곧 과학적 교수의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잡다한’ 지식의 기계적인 축적이나 다량의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단계적이고 질서있는 습득이 교과 성립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²²⁾ 따라서 분화된 교과목의 순서 배열 문제와 결합·

21) 趙琬求, 「敎無定向이면 反不如不敎」, 『畿湖興學會月報』제3호, 기호흥학회, 1908.

22) 『大韓自強會月報』제7호(대한자강회, 1907)에 실린 「교육학원리」(柳瑾 譯)에서도 교수의 원리와 형식을 강조한 교과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다.

통합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다. 즉, 교과와 분화는 단일하지 않은 교육 목표의 성립, 이를 위한 교과 자료의 선택, 그리고 과학적 교수 등의 요소를 동시에 포괄하는 현상인 것이다.

총론적 성격의 [자료1]에 이어 장웅진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교과과는 총 13개 분과²³⁾로 “(一) 修身科 (二) 言語科(國語及外國語) (三) 數學科 (四) 歷史科 (五) 地理科 (六) 理科 (七) 圖畫科 (八) 唱歌科 (九) 體操科 (十) 手工科, (十一) 農商業科 (十二) 法制經濟科 (十三) 家事裁縫科”²⁴⁾으로 나뉜다.²⁵⁾ 이상 13개의 교과를 제안하면서 장웅진은 교과는 “시대 이상의 변천을 좇아 변화”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자료3] 上古로부터 今日에 至하도록 何時代와 何地方을 勿論하고 學校에서 教授하는 科目은 다 當時의 理想目的을 從하여 選擇하는 거시니 故로 教科의 選擇하는 方法이 其時代理想의 變遷을 從하여 相異할 거슨 自然한 理勢라 舊日 東洋 諸國中에 特히 我國에서 擧用한 거스르 觀하면 修身道德으로 唯一의 學問을 삼아 古代聖賢의 遺書를 通解하고 文字를 知하며 文章을 作함으로써 唯一의 教科를 삼았고 其後 科擧法이 行한以後로는 教育의 統一이 缺하여 教授의 方法이 不一하고 教育의 目的이 又一變하여 畢竟有名無實한 尋章摘句의 餘弊가 今日에 至하여스되 (찍어쓰기는 필자).²⁶⁾

그러나 이 경우 교과와 모범이 된 사례는 서양의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변천하고 있는 교육의 양상이다. 서양의 교육이 모범적 사례로 간주되었던 반면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중세의 교육은 다만 지

23) 『大韓自強會月報』제7호(대한자강회, 1907)의 「教育學原理」에서는 “1) 倫理, 2) 語學, 3) 作文, 4) 地理歷史, 5) 數學, 6) 物理化學, 7) 動物學植物學, 8) 習字圖畫, 9) 體操手工, 10) 音樂”등으로 교과를 구분하고 있다.

24) 張膺震, 「教授와 教科에 對하여」, 『太極學報』제13-15호, 태극학회, 1907.

25) 외국의 중학교 학과표를 번역하여 실어놓은 『西北學會月報』제9-10호(서북학회, 1909)의 「學課의 要說」에서는 학과를 1) 修身, 2) 國漢文附作文習字, 3) 歷史, 4) 地理, 5) 數學, 6) 博物, 7) 物理化學, 8) 法制經濟, 9) 圖畫唱歌體操으로 나누고 있다.

26) 張膺震, 「教授와 教科에 對하여」, 『太極學報』제13호, 태극학회, 1907.

양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서양의 문명적 교과로서 “讀法書法音樂唱歌等”을 거론하고 있으면서도 조선 사회의 중세 문해력 교육은 독법과 서법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러한 전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대 이상의 변천을 좇아 변화하는” 교과라는 관점 속에 중세 조선의 교육 양상은 포착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대 이상에 따라 성립된, 역사적 교과에서 제외되었던 중세의 문해력 교육은 근대 ‘교과’의 성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재편되면서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되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볼 차례이다.

Ⅲ. 중세 문해력 교육의 해체

근대 계몽기 교육에 대한 논의의 대체적 흐름은 신학문에 대한 지향과 구학문에 대한 비판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중세의 문해력 교육에 대한 계승적 입장 역시 찾아볼 수 있다.

[자료4] 現時代教育에 關하여 各種科學이 俱係必要하니 舊時代學問과 如히 漢文一科를 專尙치 못홀지나 然이나 余가 近日學生界에 對하여 熟熟히 觀察함이 外國留學界이던지 國內各學校이던지 學生中 漢文의 資本이 有함 者는 高尚함 思想도 有하며 佳良함 品行도 有하며 各種科學에도 英敏함 悟解가 有함되 漢文의 資本이 無함 者는 思想과 品行上에 可觀함 者 無함고 各種科學에도 悟解가 遲鈍함니 此는 文學一科를 輕視치 못홀 者오 既往歷史로 觀함지라도 我西北에 文學發達이 畿湖와 嶠南에 不及함 故로 政治界와 社會界에 在함야 比肩을 不能함고 墮落함 地位에 處함였더니 今日에 至함야 學生의 多數로 言함면 西北이 最勝함나 文學程度로 言함면 東南人士를 不及함이 尙有함도다 蓋畿湖와 嶠南도 文學程度가 前日보다 墮落함았스나 猶是故家餘韻으로 聞見의 所得이 有함거니와 我西北은 自來故家의 淵源이 無함야 所謂文學을 傳授함는 者는 魚魯不辨함는 村學究와 鵝崙吞棗함는 科文家라 所以로 我西北人士가 經史諸書를 誦讀함었다 云함나 春秋가 朦朧함고 經緯가

糊塗호야 足히 社會의 筆權을 掌握호고 著述의 能力을 發表호者 | 絶少호도다 大抵 文學이란 者는 何許時代를 莫論호고 恒常 重要호 機關을 執호야 文明의 先導者도 되고 高等待遇도 受호는 者인디 我西北人士가 此에 不足之歎이 有호니 將來前途의 發揚도 又復 畿湖와 嶠南人士에게 落後될 慮가 有호리라 호노니 我西北에 有志青年은 其亦諒只어다 (띄어쓰기는 필자).²⁷⁾

한문 자본을 갖춘 학생이 신학문의 습득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고 전제하고 '文學一科'을 경시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이 때의 문학이란 중세의 한문 학습, 즉 문장지학(文章之學)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학'이라는 용어는 근대적 문학 개념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교(詩敎)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문(文), 즉 한문에 대한 학습과 관련된다.

[자료4]는 한문 소양이 학문 수양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중시하고 문(文)에 대한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자료4]가 당시 서북교육계의 실상을 진단하는 글이라는 점과 관련될 것이다. 신학문을 소개하거나 신지식이 담긴 글에서도 국문체보다는 국한문체가 일반적이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한문에 대한 소양이 근대 계몽기 성인 문해력(adult literacy)의 상당 부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자료4]는 당시의 그러한 세태를 반영한 속에서 한문 문해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4]와 같은 진단은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자료이다.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에 드러나는 다수의 입장은 당시 교육계의 실상에 대한 진단을 넘어 미래에 도달해야 할 이상향과 당면 과제의 제시가 두드러지는 만큼 중세 문해력 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교과의 개념을 개진한 장응진의 교과 분류에 따르면 중세의 교육은 1차적으로 수신과에 포함된다.

27) 「我西北教育界에 缺憾」, 『西北學會月報』제14호, 서북학회, 1909.

[자료5] 修身科는 古來我東洋先進諸國教育上에 最必要한 科目으로 各教科의 首位를 占한者라 (중략) 東洋諸國에서는 事情이 此와 異하여 古來로 修身道德이 거의 唯一의 教科가 되었슴으로 人民의 思想이 此間에 涵養되어 道德의 觀念이 隱然히 腦髓에 印하였슴則 今後로 教育의 路에 當한는 者가 捨短取長하여 此를 漸次改善完成케할 道理는 容易하거나와 此를 根本的으로 變更할 必要는 無히깃도다 (중략) 今日東洋諸國의 大体로 觀하면 修身科로써 秩序있는 道德의 教育을 施하여 此로써 各教科를 統一케하는거시 必要할 듯하도다.(피어쓰기는 필자)28)

수신과가 교과 과정에서 으뜸의 지위를 차지한 것은 근대 교육이 일본을 통해 수입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있다. 그 역사적 연원은 일본의 천황제 교육 체제 형성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²⁹⁾ 일본 중학교 학과표를 참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學科의 要說」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교과는 역시 '수신(修身)'이다. 여기서 제시된 수신 교과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家國에 對한 注意(國體를 尊崇할 事 國法을 遵守할 事 義勇公에 顯身할 事), 國家에 對한 責務(國體가 何物됨을 知케하고 皇室에 對하여 忠을 盡할 事와 皇祖, 皇宗 皇運의 大略과 國家에 關하여 國憲과 國法을 重히 할 事로부터 愛國 兵役 租稅 教育 公務 公權 國際의 義理 等) 등 근대 국가와 황실에 대한 애국충정이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學徒의 注意(學校規則師長에 對한 注意), 衛生에 關한 注意(運動을 勉하며 飲食을 節하며 身體와 衣服과 住居 等を 清潔케할 件), 朋友에 對한 주의(信義를 尊重할 事 愛情으로 交際할 事 互相助力할 事), 起居動作에 關한 注意(時間을 貴重할 事 秩序를 整頓할 事 禮容을 崇尚할 事)'³⁰⁾ 등 전근대적인 도덕 규범과 근대적 형태의 규율이 뒤섞인 채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근대 교육을 받아들이면서 수신과를 수위에 놓는 관점 역

28) 張膺震, 「教授와 教科에 對하여」, 『太極學報』제13호, 태극학회, 1907.

29) 자세한 내용은 오성철(2000),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25-226쪽 참조.

30) 「學科의 要說」, 『西北學會月報』제9호, 서북학회, 1909.

시 수입되었다. 수신과에 대한 강조는 이전까지 중시되던 중세 교육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처럼 중세 교육을 수신과로 새롭게 재편하려는 관점을 통해 경전의 내용에 따른 '도덕'이 야말로 중세 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통적인 방식의 도덕적 교육은 각 교과를 통일시키는, 교과서의 수위를 접하는 과목으로 간주되었는데, 그 교육의 방식을 근본부터 새롭게 변화시킬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심적 도야만을 중시하고 지식의 수양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중세의 교육 방식을 비판하고 새로운 신학문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어문' 교과서의 탄생이라는 시각을 견지할 때, 이러한 현상 속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중세 교육이 수신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중세 교육에 포함된 '문해력' 교육적 요소가 의도적으로 시야권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세의 읽는 방식, 즉 독법은 근대의 과학적인 교수법과는 달리 내용 이해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입으로만 응하는(口應) 비과학적인 방식이었으므로 근대적인 문해력 교육의 내용으로 포착할 수 없다는 관점이 다음 [자료6]을 통해 잘 드러난다.

[자료6] 我國의 所謂前日教育을 溯想하면 徒能讀에 不過하다 謂하리
 로다 兒童七八歲에 書熟에 入하야 開卷初面이 曰千字文이라 當初에
 千字文三字를 不知하는 孩兒를 曰天曰地를 教呼시 口喉가 不應하고
 知識이 不及하야 師曰天 則弟子 | 無意而應口曰天하며 師曰地 則弟
 子 | 無味而應口曰地라하야 如是千讀百讀에 僅得口頭謔誦이나 讀盡
 千字에 一字意味를 嘗然不知하고 一二歲光陰을 費送하며 其次에 聯
 句詩를 教呼시 曰白酒는 紅人面이요 黃金은 黑土心이라는 句語를 盡日
 讀之라도 意味를 不覺하고 字音을 難接하야 滿堂蛙鳴과 無異하며 至於
 五陵年少金市東, 銀鞍白馬度春風, 落花踏盡遊何處 笑入吳姬酒肆
 中之句로 純然히 良知良能의 孩童의게 教授하야 淫志蕩情을 招動하며
 此를 經하야 古文眞寶니 李白詩니 杜詩니 許多호 詩篇을 涉獵호의 作
 詩者의 一時感想과 觀物노 吟味호 者인즉 後之覽者 | 不過是閒中歷

眼之資요 豈以一定教科로 教之讀之者哉(떠어쓰기는 필자).³¹⁾

뜻과 그 맛을 알지 못하고 다만 입으로만 웅할 뿐이므로 따라서 천 번, 백 번을 읽을지라도 그 뜻을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중세 문해력 교육은 한자에 대한 것이었던 만큼 외국어에 대한 학습인 것이고 그로 인해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한 암송이 중요한 학습 방법으로 대두하면서 구절의 뜻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입으로만 외우는 학습이 다반사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중세 교육이 지닌 문제점으로 인해 중세의 문해력 교육은, 근대로 접어들어 기초 도구 교과로서 강조된 문해력 교육의 요소로 새롭게 해석될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되었다. 특히 근대 문해력 교육의 핵심적인 특성 중 하나는 자국어에 대한 관심이었던 만큼 외국어로 간주되었던 한문에 대한 학습이 남겨줄 만한 유산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다독(多讀)을 기본으로 하는 학습 방법은 한자 학습처럼 한 글자 한 글자를 습득해야 하는 경우어나 필요한 방법이지 “母音十一과 子音十四를 結合하여 一百五十四音이 成”³²⁾하였던 한글 학습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비과학적 방법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IV. 근대 어문 교과의 성립

근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어문 교과의 성립 과정을 구어(口語) 교육과 문어(文語)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구어 교육은 말하기와 듣기 교육으로, 문어 교육은 읽기와 쓰기 교육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교과 개념이 포함하는 세 가지 항목 중 [2] 교과 재료의 선택에 기반한 구분이다.

어문 교과의 형성은 근대적인 학교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었던 만큼

31) 中叟, 「內地各學校設廢의 情形」, 『太極學報』제25호, 태극학회, 1908.

32) 李承喬, 「國漢文論」, 『西北學會月報』제1권제1호 서북학회, 1908.

학교 교육 속에서 교과의 모습은 명확하게 부각된다.³³⁾ 이 경우 근대 계몽기 학교에서의 어문 교과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부분은 문어 교육이다. 구어 교육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에서 회화가 핵심 교육 내용으로 설정된다는 점³⁴⁾과 대비할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근대 계몽기 어문 교과의 성립과 관련한 주요 고찰 대상은 문어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문어 교육과 함께 구어 교육에 대한 당대의 인식 역시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의 어문 교과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 즉 구어 교육을 고찰 대상에 포함시킬 때, 어문 교과의 형성 과정이 온전하게 고찰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학교 교육 내 어문 교과는 형성 과정에서 무엇을 포함하는 동시에 무엇을 배제함으로써 근대적인 어문 교과의 지위를 확보하였느냐를 추적하려는 것이다.

실상 구어 교육이 학교 교육 내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당대 어문 교과가 전제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언어 생활 전반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만 어문 교과의 특별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드러난다. 둘째, 이로부터 학습자의 언어 생활을 일정한 위계로 구분하고 학습자의 성장 과정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제시된다. 예컨대 구어 교육은 유아들에게 가정 교육으로, 그리고 성인들에게 사회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문어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중세의 문해력 교육과는 다른 점을 부각시키는 게 목적이 되었다면 구어 교육은 중세 구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전제하고³⁵⁾ 구어 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를

33) 근대 계몽기의 국어교육과 국어과 교육에 대한 구분은 줄교(2002),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개념 및 범주 - 〈서우(西友)〉를 중심으로」, 『선청어문』제30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참조.

34) 일어과 보통학교 수준의 교육 내용은 “會話及口語文의 讀法, 書法, 撤法”,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 내용은 일어 “讀法, 譯解, 會話, 書取, 習字”이다. 『西北學會月報』제5호 서북학회, 1908.

확산시키는 것이 곧 목적이 되었다. 따라서 근대 계몽기 구어 교육은 하나의 교과 개념으로 포착되고 있다기보다는 교육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의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욱 주목을 요할 것이다.

1. 구어(口語) 교육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대 계몽기 구어 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학교 교육 속에서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주로 '아동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³⁶⁾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학교 교육 내용 중 구어 교육에 대한 언급이 부재한 것만은 아니지만³⁷⁾ 구어 교육의 초점은 대체로 일상에서의 구어 생활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구어 교육의 내용은 그 교육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초점을 달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료7] 大凡人이 始生할 時에 知慧靈敏를 具有한 者라 及其三四歲 頃야 言語를 粗解하면 所見의 物을 指하야 名詞와 名義를 父母의게 叩問하는 것은 天然的 求知心이 發生한 然古라 是時에 其父母된 者 | 隨問詳告하야 物質과 物名을 解得하도록 重言復言하야야 天然的 求知心이 漸次發展하야 來頭의 指問할 良心이 流出할 터이오 不然하야 或其事爲의 匆忙함을 因하든지 問答의 支離함을 因하야 孩童의 叩問하는 것을

-
- 35) 물론 이것이 중세에 구어 교육이 전무했다고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중세 구어 생활 교육에 대한 논의는 이용백(1975), 「개화기 이전의 언어생활 교육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23-25호, 『속국어교육사연구』(1988), 신구문화사 참조.
- 36) 蔡奎丙의 「社會教育」 『太極學報』제1호, 태극학회, 1906에서는 교육을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李東初의 「精神的 教育的 必要」, 『太極學報』제11호, 1907에서도 교육의 3요소로 가정, 사회, 학교를 거론하고 있다.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에서 교육을 논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교육을 분류하지 않은 경우, 대체로 이러한 삼분법에 기반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37) 權重勳(1909)은 '始作하는 學校, 文法學校, 高等學校, 大學校'로 학교를 위계화한다. 이때 시작하는 학교의 가르치는 법은 "文字의 劃數로부터 調音하는 聲韻"이다. 「教育的 制度」, 『嶠南教育會雜誌』3-4호.

揮之喝之하면 柔芽갓치 發生하든 求知心이 忽然胃縮하야 更히 叫問할 思想이 自消홀지라 其早是豫教하는 道에 關繫가 何如하리오(띄어쓰기는 필자).³⁸⁾

[자료7]에서는 말은 아동이 어려서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라는 관점이 드러난다. 따라서 처음 언어를 배우는 시기인 3-4 때 부모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구어 교육에서 중요한 국면은 유아를 위한 초기 언어 습득이었다.

반면 구어 교육에 대한 또 다른 논의는 성인을 위한 처세술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료8]

○ 交際上의 大禁物

口論이라하는 것은 社交上의 一大禁物이라 口論은 危言激語를 發키 易하고 坐輿을 破하기 容易하니 人은 口論의 恒常 勝利를 得하랴 何야 論戰에 見敗하야도 此를 自白키를 不肯하야도든 不得已하야 口論할 際에 라도 可成的 簡單明瞭한 言을 用하고 對手로 하야곰 其言코저하는 人을 言케하는 同時에 自己도 其贊同할만한 言에는 贊同하기를 躊躇치 말지어 드

○ 他人과 談話할 時

談話術은 社交上에 가장 必要한 것이라 그러는 其要訣을 知하는者 實도 鮮少하도다 談話할 際에는 決코 스스로 判決치말고 他人의 意見을 聽하랴 他人의 語하는人을 一一批評하는 者 有하나 此는 誤謬함이라 自己는 單히 同情의 有無를 表하얍즉한 言을 하면 足하고 是非의 評은 此를 他人에게 委하랴 設或 他人이 批評을 請하는 時라도 輕率한 舉動을 作지 말고 談話時에는 可成的 默默히 聽하고 恭敬하야 點頭하는 것이 最良의 策이니라

傾聽은 談話보든도 難호줄노 思하랴 大抵 사람은 獨히 스스로 言하고 他人의 言은 毫末도 耳를 傾하는 者 少하여 他人의 語를 餘他까지라도 授與치 안는者 有하나 此는 談話術에 拙호者라(띄어쓰기는 필자).³⁹⁾

38) 研究生, 「兒童教育說」, 『太極學報』제22호, 태극학회, 1908.

39) 李勳榮, 「愉快호 處世法」, 『太極學報』제8호, 태극학회, 1907.

담화시의 요결이나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자료8]은 성인들에 대한 말하기/듣기 교육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근대 계몽기 잡지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논쟁을 피하고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 즉 처세술로서 말하기/듣기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워싱턴의 좌우명 56개조를 실어 놓은 논문들이 주목을 요한다. 『태극학보(太極學報)』제10호에 실린 「華盛頓의 日常生活座右銘」과 『서북학회월보(西北學會月報)』제11호의 「讀華盛頓座右銘」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좌우명 56개조를 옮겨 실어 놓은 것이다. 역시 처세법과 관련되는데, “남이 말하거든 精神차려듯고 聽衆의 妨害가 될듯한일은 하지말라라 남이 말하다가 막히더라도 이를 助力하는 等事를 하지 말어라 남의 말이 다 끝나기 前에 이를 中斷하거나 對句하는 等事를 하지마러라”는 등의 말하고 듣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주조를 이루며, 특히 예의 범절의 차원에서 말하고 듣는 격식 등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처세법의 범주 안에서 말하기와 듣기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내용은 예의범절의 차원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화를 지속할 것인가가 주된 현안이 된다. 따라서 처세법의 차원에서 포착된 구어 교육의 경우, 상황에 따른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태도가 핵심적 사안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이상의 자료들을 토대로 할 때, 말하기/듣기 교육에 대한 당대의 관점을 재구해 볼 수 있다. 말하기/듣기 교육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인 만큼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의를 기하기만 하면 이후 특별한 교육적 처치는 필요없으며, 다만 사회 생활에서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하기와 듣기가 다시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대 계몽기의 구어 교육에 대한 관점은 ‘개화기 이전의 언어생활 교육’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이용백은

사서(四書)를 비롯하여 이황, 이이 등의 저작에서 중세 구어 교육에 대한 언급들을 토대로 하여 음성, 속도, 태도, 문답요령 등의 언어 생활의 기초면과 품위, 대인, 침묵 등의 언어 수련면, 부모, 스승, 웃어른, 형제, 손님, 대인관계 등등의 언어생활면'을 고찰하고 있는바, 각각의 내용들을 비교해보면 근대 계몽기 구어 교육의 내용과 별반 큰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처럼 제시되는 내용이 현상적으로 비슷해 보인다고 하여 근대 계몽기 구어 교육이 중세 구어 생활 교육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먼저 구어 교육 내용의 근거 자료들을 무엇으로부터 취하는지를 살펴보면, 근대 계몽기 구어 교육은 중세 구어 교육에 대한 각종 언급들에 기반하고 있다기보다는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 등을 구어 교육을 위한 제반 자료로 다루고 있다. 또한 구어 교육이 기초하고 있는 언어관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중세 구어 교육이 언행일치 등 덕행과의 연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면, 근대 계몽기 구어 교육은 의사소통 행위의 하나로서 다루어지고 있다⁴⁰⁾는 점에서 언어관의 차이를 보인다.

2. 문어(文語) 교육

앞서 살핀 '구어(口語)' 교육과는 달리 문자는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⁴¹⁾

[자료9] 산술과, 글자갯흔것들을, 학당에다니기전에, ㄹ르치는거시, 예비가, 될가하여, ㄹ르치치는, 이도잇스나, 이는, 리롬이, 업솔써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다룬교훈써지라도, 한입으로, 다룬소리를, 비앗아, 청신치, 아니홀터히니, 효

40) 圓石算人, 「語學의 性質」, 『大韓協會會報』제11호, 1909.; 張膺震, 「心理學上으로 觀察한 言語」, 『太極學報』제9호, 태극학회, 1907.

41) 權重勳(1909)은 문법학교의 교육 내용으로 “自己本國에 言語行用하는 法과 又其言語로 文章構成하는 體格”을 제시하고 있다. 『教育의 制度』, 『嶠南教育會雜誌』3-4호.

용이, 업슬것시오(띄어쓰기 원문을 따름)⁴²⁾

학교 입학 전 미리 글자를 배운다고 해도 그다지 큰 효용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인 가정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다른 분야, 즉 위생이나 건강, 혹은 덕육 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글자에 대한 학습은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한다는 견고한 전제를 드러내는 발언이기도 하다.

물론 [자료10]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생활 내에서 ‘국문’에 대한 학습은 이미 여항소설과 패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자료10] 如欲學漢文則雖非新設學校라도 舊日書塾이 依然猶存則 不必更設而可爲也오 如欲學國文則閭巷小說과 街頭稗史를 夜夜短燈에 歌之讀之者 | 不限其數則必不待學校之說而可以學之也(띄어쓰기 필자).⁴³⁾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의 학습과는 달리 좀더 조직적이고 단계적인 차원에서 학교 교육 내에서 문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과연 학교 현장에서 국문에 대한 학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

국문에 대한 학습은 기존의 문어 교육이었던 한문에 대한 학습과의 대비⁴⁴⁾ 속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국문에 대한 교육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습득해야 하는 한문 교육과는 달리 모음과 자음의 합치로 이루어져 끝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 즉 그 생산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용을 인정받는다.⁴⁵⁾

42) 金洛永, 「오히려 쓰는 방법」, 『太極學報』제2호, 태극학회, 1906.

43) 中叟, 「內地各學校設廢의 情形」, 『太極學報』제25호, 태극학회, 1908.

44) 근대 계몽기 학습 잡지에서 한문과의 대조를 통해 국문의 편리함을 강조하는 논문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姜峯, 「國文便利及漢文弊害의 說」, 『太極學報』제6호, 태극학회, 1907.; 姜峯, 「國文便利及漢文弊害의 說(前號續)」, 『太極學報』제7호, 태극학회, 1907.; 李寶鏡, 「國文과 漢文의 過渡時代」, 『太極學報』제21호, 태극학회, 1908의 다수.

45) 한문에 비하여 국문이 지녔던 편리함으로는 자모 합음으로 인한 학습의 용이함이

[자료11] 今日學校의서 教授하는 本領을 諸氏가 何如히 知하는가 入學之初에 兒童의 易曉한 國文을 教授해야 其母音子音과 合音을 知得한 後에 眼前日用事物을 爲先指示해야 次弟로 漢字教授에 及하는지라 若父字를 教할 時에 國文으로 譯해야 曰(아비부) 母字를 教할 時에 又 國文으로 譯해야 曰(에미 모)하면 其音義의 記得이 容易할뿐 外라 一字를 學하면 一字의 義를 詳知하고 二字를 學하면 二字의 義를 詳知할지니 其讀習의 功效가 何等倍徙며 其所滿篇國漢字가 一句一節이라도 尋常한 謳吟이 無하고(띄어쓰기는 필자).46)

이로부터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한글의 구조를 익히고 그로부터 한글로 쓰여진 글을 읽을 수 있는 문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근대 계몽기 어문 교과 제1의 목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문자에 대한 학습이 학교 교육의 몫으로 간주되었던 중요한 이유는 문자에 대한 학습이야말로 학문 지식, 과학을 위한 기초 활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자료12] 夫科學의 奧義는 自國語로 直接教授할지라도 其眞義의 所在을 十分說明키 難하고 理解키 難하거나 勿論 外語에 稍通한다고 素養 屢시 學問上言語를 解細이 通釋키 能하며 初學者에게 如此한 教授法을 施해야 勿지 完全한 效果를 收得키 期하리오(띄어쓰기는 필자).47)

과학의 깊은 내용은 자국어로 교수하여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때의 과학은 자연과학(사실과학)과 규범적 과학, 그리고 철학으로 나뉜다.

[자료13] 此等現象에 對하는 吾人의 知識이 經驗上 大概一定한

첫 번째 요소로 꼽혔다. “國文의 便利는 其字体의 結構가 精富하고 字母合音의 變化가 詳簡하며 規模가 確實하고 意味가 眩亂치아님으로 學習키 甚히 容易해야” 姜荃, 「國文便利及漢文弊害의 說」, 『太極學報』제6호, 태극학보, 1907.

46) 中叟, 「內地各學校設廢의 情形」, 『太極學報』제25호, 태극학회, 1908.

47) 張膺震, 「我國國民教育의 振興策」, 『太極學報』제3호, 태극학회, 1906.

法則으로 從出함을 推想할지니 此等種種의 現象을 吾人이 事實로 研究
 하여 此間에 一定한 共通의 法則을 發見하는 者를 自然科學 或事實科
 學이라 稱하는니 天文學地理學博物學物理學化學心理學其他種種의
 區別이 有하고 또 吾人人類가 社會生活上에 必要한 種種의 規則(規
 範)을 制定 準標을 立한 後에 種種에 事實을 此等標準에 對照하여 善
 惡正不正好不好等에 區別을 精神上으로 判斷하며 此等學을 規範의 科
 學이라 稱하는니 倫理學政治學美學論理學等은 다 規範의 科學이라
 (중략) 以上說來한 多數에 科學으로 研究하는 各種에 現象은 個個特殊
 한 意義를 有함이 아니라 其間에 互相深密한 關係가 有하며 結局 此等
 現象界에 總範圍를 다 包含하여 一大體系即宇宙全體가 組成된것시
 니 此宇宙 全體를 體系的으로 說明함은 實로 哲學의 目的이라 各科學
 의 研究하는 體系는 定限한 範圍가 有하는 哲學에 研究하는 體系는 全
 宇宙를 包容하여 各科學의 究極的 說明을 供給하는 者니 此로써 觀하
 연 哲學은 科學以上の 科學이라 稱하리로다(띄어쓰기는 필자).48)

주로 학교에서 교육할 내용은 '학문지식'49), 혹은 전문적 지식, 문자
 에 대한 교육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 때, 과학적 지식은 주로 근대 과학
 에 기초한 분류이다. 낯설은 신학문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자국어
 가 필요하다는 관점은 내용 학습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 언어에 접근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것은 당대 국민 국가 건설과 관련하여 팽배해
 있던 자국어에 대한 관심과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자료14] (二) 言語科(國語及外國語)

言語修養과 心的陶冶는 密接한 關係를 有한 거시니 普通教育上에
 言語의 修養은 最必要한 거시라 吾人은 言語로써 意思表示와 思想發
 展의 重要한 手段으로만 用할 뿐이 아니라 此로 由하여 人類發展의 經路
 와 國民開化에 多大한 影響을 及한 許多한 記錄을 理解키 能하나니

故로 上古로부터 教育設備上에 最初에는 言語를 教授하여 書冊을 讀
 케하고 또 此意義를 利害함으로써 重要한 科目을 삼았스니 此는 必竟 此

48) 張膺震, 「科學論」, 『太極學報』제5호, 태극학회, 1906.

49) "學校에서 教師의 薰陶를 被하여 學問智識을 養成하며" 蔡奎丙, 「社會
 教育」, 『太極學報』제1호, 태극학회, 1906.

等學習으로써 時代國民의 心的生活을 保有케하고 또 普通教育의 基礎를 作함에 由함이라

今日 普通教育을 施하는 學校에서 程度의 如何를 不問하고 一般自國語로 中心을 삼는 것은 世界各國이 一般이라 古昔人道主義가 復興할 時代에는 古語를 研究하여 古人의 遺書를 理解함으로써 惟務하고 外國語를 自國語보다 多리히 尊重히 한 弊端이 有하였스나(我國의 從來教育이 我國國文은 卑賤하다 하여 排斥不用하고 漢文만 專尙하였스며 漢文에도 또 古字篆字와 窮僻한 文字等을 多數探究하여 古書를 多解함으로써 學識의 尊卑를 比較함과 如함) 此等謬見은 過去時代에 已屬하고 各國이 다} 그 自國語로써 教育의 中心을 삼나니 此는 卽國民으로 하여금 各自의 義務를 盡케코저하면 일즉히 國家名義에 同情을 表하여 愛國의 情을 喚起케할 거시오 또 國語는 其國民의 思想感情을 表出하는거시미 同胞를 結合함에 最有力한 方便이라 如此히 國民學校程度에서는 다못 自國語로써 國民現時의 狀況을 了解함으로써 滿足할거시나 萬一一層을 更進하여 此研究理解의 力을 深遠케코저하면 其由來의 沿革을 明察하고 他國의 開化를 比較하며 他國民의 思想感情을 探究할 必要가 有하도록다 然則 國民學校以上程度되는 學校에서 國語를 課하며 外國語를 課하는것은 不得已한 已勢라 特히 他國의 文化를 受入하여 自國의 發展을 供給하는 國에서는 一層 그 必要를 見하니 故로 現時에는 何國을 勿論하고 中學程度以上되는 學校에서는 自國과 最密接한 關係가 有한 一兩個外國語를 課케오고 此와 同時에 自國文學을 一層 더 研究하여 自國文學의 眞髓를 翫味하며 特質과 妙味를 感得케하여 演說과 文章上에 精巧를 極하게 務圖하는거시라(여여쓰기는 필자). 50)

장웅진은 자국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묶어 언어과로 분류한 후, 언어과를 다른 교과의 기초 과목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장웅진에게 언어는 기능적 차원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언어 수양은 마음의 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만큼 언어과 교육은 개인의 심성을 도야하기 위한 기초과목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장웅진은 언어과의 목표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의사표시'와 '사상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개화'를, 세계적 차원에서는 '인류발전'을

50) 張膺震, 『教授와 教科에 對하여』, 『太極學報』제13호, 태극학회, 1907.

제시하고 있다. 뒤이어 언어과 교육이 “國民의 生活”과 “普通教育”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세 가지 차원의 목표 중 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세의 백성과는 달리 균질적(均質的) 존재로 가정되었던 ‘국민의 탄생’을 위해 국어교육이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근대 계몽기의 시대적 특성이 반영된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국어 교육의 방법으로 장웅진은 문학을 통한 교육을 제안한다. 이러한 자국어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근대성의 징표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사고 방식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⁵¹⁾

장웅진은 자국 문학의 특질과 묘미를 느끼어 획득함으로써 연설과 문장상의 정밀한 묘미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쓰기 교육의 전범 텍스트로서 자국 문학을 제안하는 것은 문학이야말로 자국어의 진수를 담고 있어 자국어의 특질과 묘미를 느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텍스트라는 관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자국어 문학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근대적 관점이라는 점에서 장웅진이 제기하는 자국 문학은 생활 속에서 고전 소설을 통해 국문을 습득하는 [자료10]의 모습 넘어 자국어로 이루어진 근대 문학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때의 자국 문학이 오늘날과 완전히 동일한 문학 개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자국어로 된 글쓰기만이 문학으로서의 의의를 인정받게 된 것은 1910년대 들어서이며, 1900년대는 ‘자국어로서의 문학’ 개념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⁵²⁾ 1900년대의 문학(文學)이라는 용어 속에는 ‘문장지학(文章之學)’의 의미⁵³⁾와 근대적인 문학(literature) 개념⁵⁴⁾이 뒤섞여 있

51) 임지현·사카이 나오키(2003), 『오만과 편견』, 휴머니스트, 224쪽.

52) 이에 대해서는 권보드래(2000), 앞의 책, “3장 ‘문’ 개념의 함의와 근대 문학”을 참조할 것.

53) III장 [자료4]의 「我西北教育界에 缺憾」, 『西北學會月報』제14호, 서북학회, 1909를 들 수 있다.

었다.

1909년의 「學科의 要說」에서는 작문 시간의 재료로 “現代 著述家의 平易한 記事文 敍事文 演說 談話 書牘 及 新體詩等”⁵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할 때, 자국 문학에 대한 강조는 일차적으로는 동시대성 즉, “옛 典籍에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일상에 대응하는 것”⁵⁶⁾에 대한 강조를 의미하며, 이러한 동시대성에 대한 강조는 근대의 문학 범주의 형성과 자연스럽게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웅진 논의 속의 ‘자국 문학’ 역시 동시대의 다기한 자국어 저술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역시 다양한 저술물 속에서 특권화된 근대적인 문학 개념 속으로 견인되고 있는 과정이라 예상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 13종을 대상으로 하여 근대 국민 국가 건설과 관련하여 강조되었던 어문 교과서의 형성 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 국어 교과서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굴절과 변이를 포착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 목적이다.

근대 계몽기 들어 ‘국문’이 자국어로 포착됨으로써 원칙적으로 ‘국문’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속에서는 국문 교육과 중세부터 이어온 한문 교육이 혼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교과’ 개념의 등장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재편·견인하고자 하는 이론적 모색을 살펴볼 수 있다.

54) 李寶鏡(이광수), 「文學의 價値」, 『大韓興學報』11호, 대한흥학회, 1910에서 는 '문학'을 'literature'로 파악하는 관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55) 「學科의 要說」, 『西北學會月報』제9호, 서북학회, 1909.

56) 권보드래(2000), 앞의 책, 100쪽.

근대 교육의 도입과 함께 등장한 '교과'의 개념은 신학문, 신교육의 특징적 면모라 할 수 있다. 곧 교과 개념의 등장은 곧 단일하지 않은 교육 목표의 세분화, 이를 위한 교과 재료의 선택, 그리고 과학적인 교수 등의 요소를 동시에 포괄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교과 개념의 등장은 중세부터 지속되고 있었던 전통 교육에 대한 의도적인 재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중세 교육이 수신과로 분류·편입됨으로써 중세 교육에 포함된 문해력 교육적 요소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또한 중세의 한문을 읽고 쓰는 문해력 교육은 근대의 과학적인 교수법과는 대비되는 비과학적 방식으로 비판되면서 근대로 접어들어 기초 도구 교과로서 강조된 문해력 교육의 요소로 새롭게 해석될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되었다.

근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어문 교과를 구어 교육과 문어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근대 계몽기 문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중세의 문해력 교육과는 다른 점을 부각시키는 게 목적이 되었다면 구어 교육은 중세 구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전제하고 구어 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를 확산시키는 것이 곧 목적이 되었다.

구어 교육은 교육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한 분과인 교과의 개념으로 포착되지는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당대의 말하기/듣기 교육에서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인 만큼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이후 특별한 교육적 처치는 필요 없으며, 다만 사회 생활을 위해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하기와 듣기가 중요해진다는 관점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문어 교육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하위 요소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문자에 대한 학습이야말로 근대적(과학) 지식 습득을 위한 기초 활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국문에 대한 교육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습득해야 하는 한문 교육과는 달리 모음과 자음의 합치로 이루어져 끝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 즉 그 생산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용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한글의 구조를 익히고 그로

부터 한글로 쓰여진 글을 읽을 수 있는 문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근대 계몽기 어문 교과에의 제1 목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논의는 대상 자료를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학술 잡지가 신학문, 신교육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던 매체였던 만큼 근대적 개념의 '어문' 교과에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는 데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으나 근대 계몽기 어문 교과에의 형성 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 자료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의 어문 교과에의 형성 과정은 교과 개념이 포함한 세 가지 요소 중 '① 교육 목표의 세분화'와 '② 교과 재료의 선택'에 주로 기대어 논의하였던 만큼 '③ 과학적인 교수'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이 부분은 후속⁵⁷⁾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小學校令』附校則, 丁酉, 국립도서관 소장본.
 崔在學(1908), 『文章指南』, 徽文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崔在學(1909), 『實地應用作文法』, 徽文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李覺鍾(1912), 『實用作文法』, 博文書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7년본).
 李鍾麟(1913), 『文章體法』, 善書館(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大朝鮮獨立協會會報』(『韓國 開化期 學術誌』, 韓國學文獻研究所編, 1978).
 『大韓自強會月報』(『韓國 開化期 學術誌』, 韓國學文獻研究所編, 1976).
 『西友』(『韓國 開化期 學術誌』, 韓國學文獻研究所編, 1976).

57) ③ 과학적인 교수는 줄고(2003),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특성 -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제11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논문의 후속 논문으로 집필되었으나 지면상으로는 먼저 발표되었다.

- 『西北學會月報』(『韓國 開化期 學術誌』,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1976).
『太極學報』(『韓國 開化期 學術誌』,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1976).
『大韓留學生會學報』(『韓國 開化期 學術誌』,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1978).
『大東學會月報』(『韓國 開化期 學術誌』,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1989).
『大韓學會月報』(『韓國 開化期 學術誌』,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1976).
『湖南學報』(『韓國 開化期 學術誌』,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1978).
『畿湖興學會月報』(『韓國 開化期 學術誌』,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1976).
『大韓協會會報』(『韓國 開化期 學術誌』,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1976).
『大韓興學報』(『韓國 開化期 學術誌』,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1978).
『嶠南教育會雜誌』(『韓國 開化期 學術誌』,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1989).

박봉배(1992), 「개화기 국어과 교육연구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1980. 『국어과교육논총 研學稿 I』, 한국국어과교육개발연구회.

조문제(1984), 「개화기 국어과 교육의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조희정(2002),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조선 세종조 과거 시험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_____(2002),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개념 및 범주 - 〈서우(西友)〉를 중심으로」, 『선청어문』제30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_____(2003), 「근대 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특성 -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제11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출판부.

권보드래(2000),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오성철(2000),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이인제(1997), 『국어교과학 연구』, 교과학연구총서3 연구보고 RR97-16-2. 한국교육개발원.

- 이응백(1988), 『속 국어교육사연구』, 신구문화사.
임지현·사카이 나오키(2003), 『오만과 편견』, 휴머니스트.
박봉배(1987), 『한국국어교육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최현섭외(2000), 『국어교육학개론』 제2판, 삼지원.

〈초록〉

근대 계몽기 어문 교과서의 형성에 관한 연구

-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를 중심으로 -

조희정

본 논문은 근대 계몽기 학술 잡지 13종을 대상으로 하여 근대 국민 국가 건설과 관련해서 강조되었던 '어문' 교과서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삼았다. 근대 계몽기 들어 '국문'이 자국어로 포착됨으로써 원칙적으로 '국문'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속에서는 국문 교육과 중세부터 이어온 한문 교육이 혼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재편·견인하고자 하는 이론적 모색이 등장하였는데, '어문 교과' 개념을 매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근대 교육의 도입과 함께 등장한 '교과'의 개념은 신학문, 신교육의 특징적 면모라 할 수 있다. 곧 교과 개념의 등장은 곧 단일하지 않은 교육 목표의 세분화, 이를 위한 교과 재료의 선택, 그리고 과학적인 교수 등의 요소를 동시적으로 포괄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교과 개념의 등장은 중세부터 지속되고 있었던 전통 교육에 대한 의도적인 재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중세 교육이 수신과로 분류·편입됨으로써 중세 교육에 포함 된 문해 교육적 요소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또한 중세의 한문을 읽고 쓰는 문해력 교육은 근대의 과학적인 교수법과는 대비되는 비과학적 방식으로 비판되면서 근대로 접어들어 기초 도구 교과로서 강조된 문해력 교육의 요소로 새롭게 해석될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되었다.

근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어문 교과를 구어 교육과 문어 교육으로 나

누어 고찰하였다. 근대 계몽기 문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중세의 문해력 교육과는 다른 점을 부각시키는 게 목적이 되었다면 구어 교육에서는 중세 구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전해되었던 만큼 구어 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를 확산시키는 것이 곧 목적이 되었다.

구어 교육은 교육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한 분과인 교과에의 개념으로 포착되지는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당대의 말하기/듣기 교육에서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인 만큼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이후 특별한 교육적 처치는 필요 없으며, 다만 사회 생활을 위한 처세술로서 다시 말하기와 듣기가 중요해진다는 관점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문어 교육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하위 요소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문자에 대한 학습이야말로 근대적 (과학) 지식 습득을 위한 기초 활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국문에 대한 교육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습득해야 하는 한문 교육과는 달리 모음과 자음의 합치로 이루어져 끝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 즉 그 생산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용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한글의 구조를 익히고 그로부터 한글로 쓰여진 글을 읽을 수 있는 문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근대 계몽기 어문 교과에의 제1 목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근대계몽기 학술 잡지, 어문 교과, 교육 목표의 세분화, 교과 재료의 선택, 과학적인 교수, 구어 교육, 문어 교육.

<Abstract>

**The study on the formation of Korean
subject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Cho, Hee-j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of 'Korean' subject that were stressed on for the sake of the foundation of Modern national state, on the journal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The entrance of subject's concept with import of Modern education included the specialization of educational object, the choice of subject material and the scientific teaching. The concept of subject brought about the reorganization of medieval education.

Medieval education of Chosun [朝鮮] Dynasty was classified into the subject of moral culture, for that reason the literary element of medieval education was excluded in the modern educational system intentionally. As the teaching in medieval literacy education was contrasted with scientific teaching of modern education, it was regarded as unscientific thing, and didn't leave the possibility that was re-interpreted as the element of literacy education.

'Korean' subject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was made up of the spoken language teaching and the written language teaching. The discussions about the written lan-

guage teaching aimed at revealing the point of difference from the medieval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 discussions about the spoken language teaching aimed at spreading the understanding of the spoken language teaching as it was supposed that there were not the spoken language teaching in the middle ages.

In spite of raising the educational necessity in the spoken language teaching, the spoken language teaching was not set up the subject of schooling. As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the speaking/listening was considered as acquiring it naturally, it was not necessary that they should prepare the educational management specially as if they would take care of the beginning. However the speaking /listening was important again for knowing how to make a living.

On the other hand, the written language education was considered as importance element of schooling, because the learning about a letter was regarded as the basis for the studying the modern science. Because Korean was characterized by the composition of the phoneme, a vowel and a consonant in comparison with Chinese language, it was first aim in the written language teaching that they studied the structure of Korean and acquired the literacy, reading/writing Korean.

【key words】 a journal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Korean' subject, specialization of educational object, choice of subject material, scientific teaching, spoken language teaching, written language teaching